

애경·다우, 자산 5조 넘어 신규 지정… 한진중은 제외

5조 이상 공시대상 기업 59개 지정
재무상태 좋아졌지만 순이익 줄어
기업집단 자산총액 239조700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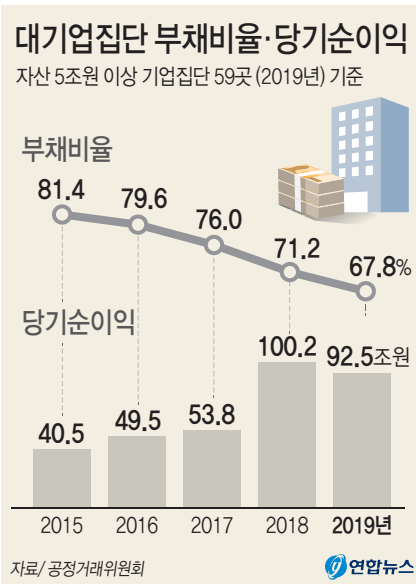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이 재무상태는 개선되고 있으나 수익성은 다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경과 다우키움 등 2개 그룹이 신규 진입했고 한진중공업 등 3개 그룹은 제외됐다. 카카오그룹은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어서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59개를 지정하면서 이들 집단의 재무현황과 경영성과 등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서 대규모 내부거래 등 공시 및 신고의무를 지우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을 규제하고, 자산 10조원이 넘는 기업은 다시 상호출자 제한 집단으로 분류하고서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등을 금지한다.

◆부채비율 줄었지만 수익성은 악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가 나아졌지만 순이익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수익성은 좋지 않았다.



올해 공시대상 집단의 부채비율은 67.8%로 작년 71.2% 대비 3.4%포인트 낮아졌다.

대우조선해양은 부채비율이 88.6%포인트, 중흥건설은 30.7%포인트, 금호석유화학은 29.4%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의 차입금이 감소했고 중흥건설은 부채비율이 높았던 계열사들이 대거 독립했으며 금호석유화학은 계열사 영업실적이 개선됐다.

반면 한국투자금융이 부채비율이

35.9%포인트 오르고, 한진(33.6%포인트), 에스오일(28.6%포인트)도 부채비율이 상승했다.

한국투자금융은 신규 자산 취득을 위한 단기차입이 늘었고 한진은 대한항공의 항공기 구입에 따른 차입금이 증가했다.

자산 5조원 이상 집단의 부채비율은 2015년 81.4%에서 2016년 79.6%, 2017년 76.0%에 이어 작년 71.2%, 올해 67.8% 등으로 꾸준히 개선됐다.

상호출자제한 집단의 부채비율은 67.3%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공시대상 집단의 매출이 1422조원으로 전년(1359조5000억원) 대비 4.5% 늘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100조2000억원에서 92조5000억원으로 7.6% 줄어드는 등 수익성은 악화했다.

매출액은 SK가 전년 대비 26조1000억원 증가했고 삼성은 9조6000억원 불었다. 작년 반도체 호황과 유가 상승으로 SK와 삼성의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당기순이익은 SK가 5조3000억원, 삼성은 4조1000억원, 효성이 2조7000억원 증가했지만 현대중공업(-5조4000억원), LG(-3조7000억원), 현대

자동차(-3조5000억원) 순으로 많이 줄었다.

현대중공업은 원자재가격 인상 등으로, LG는 LCD 공급과잉과 휴대폰 실적부진 등에 따른 수익 악화, 현대차는 원화 강세에 따른 환차손 및 철강 등 주요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다.

◆자산총액 꾸준한 증가세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보다 3.7%(73조원) 늘어난 23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HDC(자산 10조6000억원)가 지난해 46위에서 올해 33위로 13계단 상승했고 카카오(10조6000억원)는 39위에서 32위로, 하림(11조9000억원)은 지난해 32위에서 올해 26위로 올랐다.

HDC는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계열 편입과 HDC㈜의 유상증자 등으로 자산이 많이 늘었고 카카오는 계열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및 주식 취득으로 자산이 불었다. 하림은 종합식품단지 조성, 선박 건조 등으로 유형자산이 증가했다.

반면 한라(7조7000억원)는 41위에서 49위로 8계단 내려갔고 KCC(10조4000억원)는 29위에서 34위, OCI(10조7000억원)는 27위에서 31위로 하락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보다 5.0% 증가한 1846조4000억원이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2015년 1646조3000억원에서 올해 2039조7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기업집단 순위는 1위부터 6위까지가 삼성(414조5000억원), 현대자동차(223조5000억원), SK(218조원), LG(129조6000억원), 롯데(115조3000억원), 포스코(78조3000억원) 등 순으로 작년과 달라지지 않았다. 한화(65조6000억원)가 지난해 8위에서 올해 7위로 올랐고 GS(62조9000억원)는 반대로 7위에서 8위로 내려섰다.

9위는 농협(59조2000억원), 10위는 현대중공업(54조8000억원) 등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공시 등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의 적용대상이 59개 집단으로 확정됐다”며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민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총수 세대교체 속 ‘상속세’ 뜨거운 감자… 구광모·박정원 ‘맑음’, 조원태 ‘흐림’

LG·두산, 상속세 해결 문제 없을 듯
한진, 부동산 매각 등 실탄 확보 전망

국내 주요 그룹의 총수가 40~50대로 빠르게 세대교체 되면서 ‘상속세’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15일 동일인에 지정되면서 ‘새내기 총수’로 등극했다. 그러나 ‘가족 갈등’ 논란 끝에 총수로 지정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용호 LG 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구광모 LG그룹 회장, 국내 최장수 두산그룹의 4세 경영 시대를 연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바로 상속세 해결을 통한 안정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적인 경영권 확보다.

구광모 회장은 지난해 별세한 구본무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기 위해 자회사를 팔아 9215억원의 상속세 1차분을 마련했다. ㈜LG 주식의 49.9%를 용산세무서 등에 담보로 내놓았다. 상대적으로 오랜기간 경영 승계를 위해 꾸준히 지

분을 늘려왔고, 경영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역대 최고 상속세(9000억원대)를 납부해야 하지만 무난하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정원 두산 회장도 ㈜두산의 지분 6.4%를 보유한 최대주주 상태로 이미 2016년 3월 그룹 회장직을 물려받아 지분

상속 부분에 대해선 부담이 없는 상태다. 박 회장은 두산의 등기임원으로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과 함께 경영관리를 총괄하다 박용만 회장으로부터 그룹 회장을 승계해 오너4세 경영시대를 열게됐다.

다만 갑작스레 지난 4월 조양호 전 회장이 타계한 한진그룹은 아직 상속세 납부와 관련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과세 당국에 따르면 상속세는 조 회장이 사망한 시점의 앞뒤 2개월씩 4개월 치 평균 주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 주당 20%를 할증해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아들 조원태 회장이 고 조양호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17.84%를 모두 물려 받으려면 세율 50%로 단순 계산해도 상속세는 2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속세의 규모는 향후 한진칼 주가의 향방에 좌우될 전망이다. 향후 한진칼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면 상속세도 2000억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주가가 오히려 뛴다면 상속세는 더 불어나게 된다.

한진일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경영권 확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행동주의펀드인 KCGI가 지분을 14.98%까지 올리며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승계 지분은 되도록 유지하면서 주식담보 대출을 받거나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배당을 확대하는 등 실탄을 확보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운 기자 ysw@

공정위 “현대차 정몽구, 정상적인 경영 가능 판단”

일문일답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각에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총수 지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발표 브리핑에서 “현대차로부터 정 회장의 자필서명과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음은 김성삼 국장과의 일문일답.

-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직권 지정한 근거는.

“한진은 조양호 회장이 별세했기에 동일인 변경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지난 3일 ‘내부에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을 정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14조 4항에 따라서 특수관계인 중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에게 지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조 회장 측은 자필서명과 함께 자료 제출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했다.”

- 한진그룹은 동일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동일인이 변경될 경우 그룹이 공정위에 변경신청을 하는 게 맞다. 한진은 내부 합치가 되지 않아서 신청을 못 했기 때문

에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조원태 대표이사가 위임장, 확인서, 인감과 자필서명을 냈다. 만약 한진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 조원태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 중요한 건 조원태라는 개인의 한진그룹 실패 지배 판단인 것 같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로 변하고 있고 최정점이 한진칼이다. 한진칼 공동대표이사로 조원태 회장이 등재됐긴 했지만 일단 대표이사다. 강성부펀드가 최대주주지만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더 지분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 지배력은 잘 모르겠지만, 지분이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이나 조직변

경이라든가 투자 결정,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현시점에서는 조원태 대표이사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저희가 지정했다고 보면 된다.”

-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모비스 합병과 철회, 주요 임원 선임 등 한 것을 고려하면 지배력 요건에 부합해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지 않나.

“기존 동일인을 바꾼다는 것은 그 그룹뿐만 아니라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이 미친다. 그래서 중대·명백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은 한 바꾸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삼성은 기존 동일인이 의식불명 상태여서 의사결정을 거의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변경한 것이다.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기는 했지만,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동일인으로 볼 여지가 많다. 여전히 동일인 정몽구의 영향을 받는 개연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몽구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이다.”

- 현대차는 자료 제출이 늦어졌다. 어떤 자료가 늦어진 것인가.

“2월 25일에 4월 12일까지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현대차에서는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정몽구 회장의 자필서명이 늦어졌다. 지난 8일 자필서명이 제출돼 동일인 지정에는 별문제가 없었다. 정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도 받았다. 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자필서명과 건강소견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몽구 회장을 동일인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